

‘선거 특수’ 희비 교차

인쇄·렌터카 업체 ‘웃고’... 이벤트사·음식점 ‘울고’

4·9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특수(特需)를 기대했던 업종간, 업체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수막·홍보물 제작업체와 차량 대여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행사 기획사 등은 강화된 선거법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선거 특수를 가장 특목히 누리고 있는 업종은 홍보물 디자인과 인쇄업체.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들이 처음에는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나뉘어 홍보물을 제작했지만 당이 합쳐지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당명만을 교체한 새로운 홍보물을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 자체 제작하고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통합민주당의 CI(Corporate Identity·이미지 통합)가 확정되면 일부 홍보물을 다시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정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 홍보담당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명함의 3분의 1 가량 남았지만 합당 이후 당명이 바뀌면서 명함을 다시 찍었다”며 “대형 현수막도 새로운 홍보 문구를 추가해 다시 제작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의 U인쇄업체 김모(41) 사장은 “기획·디자인·인쇄가 한번에 가능한 일부 대형업체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홍보물은 수도권 대형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량 대여업체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각 후보들이 제일 선호하는 차량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애용했던 “그랜드 카니발”. 조영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와 김동신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정용화 서구갑 예비후보가 대표적인 예다. 후보들은 차량 공간이 넓어 이동시에도 화의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위화감을 주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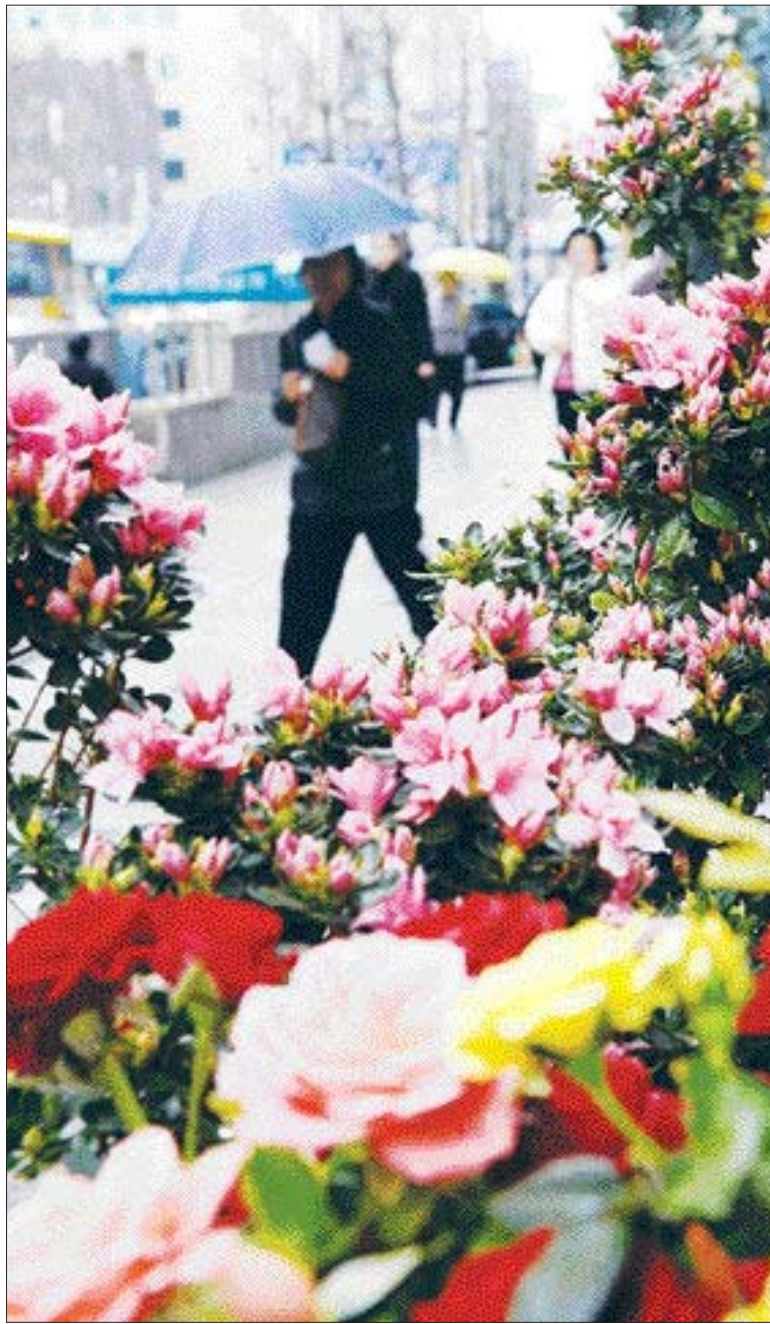
는다는 것이 이 차량을 대역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갑 모 후보측은 “몇 군데 차량대여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그랜드 카니발’은 동이나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거특수는 커녕 울상인 업체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은 행사 기획사. 평소 같으면 지자체들의 축제를 기획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지만 요즘은 개점휴업 상태다.

B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35) 사장은 “선거법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는 지자체가 많아 직원들 인건비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요식업계에도 선거특수는 없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횡집을 운영하는 김모(여·52)씨는 “평소에는 유력인사들이 많이 찾았는데 선거가 본격화된 이달부터 발길이 뜸해졌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 꽃집에 전시된 장미와 철쭉이 활짝 피어 있다. 이번 비는 26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5~20mm 가량 내릴 전망이다. 이날 오후부터 날씨가 차차 풀릴 전망이다. /위경라기자 jrwi@kwangju.co.kr

촉촉한 봄비 2월 26일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온 후 오전에 개겠다.

광주	눈/비 후 오전에	0~3℃
주요	눈/비 후 오전에	1~3℃
안도	눈/비 후 오전에	2~5℃
안도	눈/비 후 오전에	1~4℃
구례	눈/비 후 오전에	-1~3℃
장흥	눈/비 후 오전에	0~4℃
곡성	눈/비 후 오전에	0~4℃
영광	눈/비 후 오전에	0~4℃
진안	눈/비 후 오전에	-1~2℃
남원	눈/비 후 오전에	1~4℃
남원	눈/비 후 오전에	-2~2℃
홍산도	눈/비 후 오전에	-2~4℃
홍산도	눈/비 후 오전에	1~2℃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4.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남해동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5:10 썰물 < 10:18
목포 밀물 < 17:03 썰물 < 22:26
여수 밀물 < 11:43 썰물 < 05:42
여수 밀물 < --:-- 썰물 < 17:43

▲해돋이 07:07 ▲해질 18:24 ▲달돋이 23:33 ▲달질 09:18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27(수)	28(목)	29(금)	3/1(토)	2(일)	3(월)
날씨						
최저/최고	-3/8	-2/10	0/8	-1/9	1/7	2/8

교육부 지방 교부금 불평등 심화

정현석 전남교육청 국장 논문서 지적

지난 1996년부터 최근 10년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배분의 지역 간 불평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정현석(56) 전남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26일 전남대에서 취학한 박사학위(행정학) 논문인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정 국장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이후 교육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배분의 지역 간 공평성을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1996년 0.37

에서 2005년에는 0.50으로 불평등 정도가 점차 심해졌다.

지니계수 ‘0.37’이면 저불균등 분배 수준이나 ‘0.50’이면 중불균등 분배 수준으로 이는 10년 동안 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 국장은 이 같은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이 공감할 수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국장은 지방교육재정 배분정책이 노동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는 현행 학생 수 위주의 배분 기준보다 지역별, 학교별로 상이한 교육여건과 특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배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노동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배분에 대한 현행 제도와 규정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며 “지역 현실과 여건, 특이 상황을 감안한 교부금 배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약하다.

모처럼 비...봄이 오는 소리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 꽃집에 전시된 장미와 철쭉이 활짝 피어 있다. 이번 비는 26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5~20mm 가량 내릴 전망이다. 이날 오후부터 날씨가 차차 풀릴 전망이다. /위경라기자 jrwi@kwangju.co.kr

대졸예정자 올해 취업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

학점 3.64점 토익 776점

올해 새롭게 취업시장에 뛰어들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잡코리아는 대학생 지식포털인 캠퍼스몬과 함께 캠퍼스몬 회원 중 4년제 대학졸업 예정자 690명을 대상으로 취업스펙(입사지원자의 기본요건)을 설문한 결과 졸업학점과 토익점수가 각각 평균 3.64점, 776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남성의 경우 학점은 3.65점, 토익은 772점이었고, 여성은 3.63점에 783

점이었다. 최근 주요 대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영어 말하기 능력시험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는 10.0%였다.

자신의 어학실력에 대해 ‘외국인과 자유롭게 비즈니스 회화를 나눌 수 있는 상급 수준’이라고 답한 대학생은 5.7%에 불과했다. 대개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비즈니스 회화는 다소 어려운 중급 수준’(63.3%)이라고 밝혔다.

해외 어학연수를 경험한 대학생들은 30.1%. 해외 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60.6%였다. 대학생 78.3%가 ‘입사지원서에 기재 가능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취득한 자격증 수는 평균 2.9개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지켜라”

국보 13호 세종조 건립...보호 관심 급증

국보 1호 승례문 화재 참사 이후 승례문에 이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국보 목조건축물중 하나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無爲寺 極樂寶殿)’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62년 국보 제1호인 승례문에 이어 국내 목조건축물 중 두 번째로 국보로 지정된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13호)은 1430년(세종12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 양식의 맞배 지붕의 단아한 건축물이다.

내부에는 기둥 없이 목조아미 타살존불좌상, 아미타후불좌상, 백의관음도 등이 있다. 또 성보박

물관에 전시돼 있는 극락전내벽 사면벽화 29점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승례문 참사 이후 무위사를 찾는 문화재 전문가와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무위사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순찰과 화재점검 등 특발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남 강진군 관광개발팀 팀장은 “앞으로도 무위사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광주 지하철 2호선

전남대역 설치해야”

전남대학교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의 전남대역 설치’를 주장했다.

전남대 교수협의회·평의원회·직원협의회·총학생회,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남대지부 등 5개 단체는 “현재 전남대입구 사거리를 지나도

록 돼 있는 2호선 계획을 대량교통수요 발생지역인 전남대를 직접 통과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지하철 이용자의 통행편리성 및 접근성이 보장되고 운영자의 수익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전남대 인근 구간을 통과하는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은 ‘서방사거리~종흥삼거리~전대입구 사거리~남양파크~서광주 농협’을 지나도록 되어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PSA 과학 전문 학원

선거유세 영상 차량 접수중

선명한 LED 영상 홍보 차량

(주)빅키세븐 T. 232-7777

건물 매각

011-122-0763